

평등한 세상을 위한
실천과 연대

동인련과
레인보우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요!



동인련은 다양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성소수자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동인련은 '실천'과 '연대'라는 활동원칙 아래 모든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평등한 사회를 꿈꿉니다.

무엇보다 평등한 권리를 위해 함께하는 성소수자들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동인련은 정부와 기업의 후원 없이 회원 및 회원회원의 자발적인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기출금제도(CMS)로 손쉽게 동인련 활동에 큰 힘을 보탬 수 있습니다. CMS는 인권재단 사람을 통해 운영되며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042601-04-000151

정민석(동인련)

회원가입 및 후원문의
lgbtpride@empal.com
070-7592-9984

청소년 성소수자가 안전하게 지낼

심터를 함께 만들어요!



무지개청소년세이프스페이스 프로젝트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기로부터 보호하고 필요한 돌봄을 제공해 자신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긍정하며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괴롭힘과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가정과 학교에서 지지를 받지 못해 거리에서 생활하는 위기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함께합니다.

2014년 9월 거리상담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최초의' 청소년 성소수자 센터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후원에 참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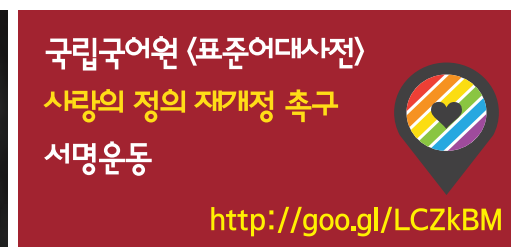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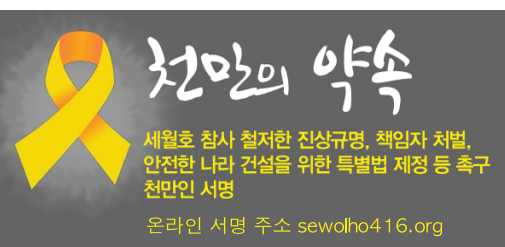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지지자가 되어주세요!



심터를 만들기 위한
티셔츠 판매

10만원 기부 약정 클럽에 가입하면
티셔츠 및 기념품을 드립니다

lgbtpride.or.kr/safespace
E_mail : rainbowsafespace@gmail.com
Tel : 070-7592-9984
코디네이터 : 동성애자인권연대



우리들 삶에 활력을!
마성의 동인련 웹진 너 나 우리 '랑'
큐_아르 코모드(QR Code)를 찍어보세요!



호 외

발행 :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 '랑' 기획팀
lgbtpride.tistory.com
발행일 : 2014년 6월 7일
SNS : lgbtaction @lgbtaction

호모포비아에 맞선 성소수자 자금심 행진을 축하하며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 '랑' 에서 발행한 특별호

침묵은 죽음이다!



침묵하는 세월호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들으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죽어갔습니다. 슬픔을 느끼고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전가와 무성의한 대책으로 일관하며 침묵하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침묵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부조리한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일이야 말로 세월호의 사람들을 기억하는 진정한 애도일 것입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 '랑'은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Why so serious? 무엇이 그리 심각한가?

2013년 6월, 미국의 대표적인 엑스-게이(ex-gay) 기독교 단체였던 ‘엑소더스(Exodus)’는 동성애자들을 ‘치유’하려 했던 자신들의 활동이 그간 LGBT에게 악영향 미쳤음을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문을 닫았다. 종교적 신념을 명분삼아 LGBT에 대해 반감을 조장하고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던 극우 기독교 세력의 ‘본점’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자인하며 파산선고를 한 것이다. 현대 2014년, 망한 ‘본점’의 낡은 논리를 그대로 수입한 한국의 극우 기독교 세력은 시대의 흐름에 굴하지 않고 그 세를 더욱 확장하려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청소년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크게 늘고 있다’, ‘동성애 조장을 막지 않으면 우리 청소년들이 에이즈로 고통당한다’며 쿼어퍼레이드와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강도를 높여가며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 급기야 이제는 ‘동성애 회복자 HIV와 에이즈 감염자를 돕는 NGO’까지 만들겠다고 나서는 실정이다.

쿼어퍼레이드를 방해하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동성애 확산방지’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극우기독교세력의 명분은 결국 에이즈와 청소년이다. 동성애와 에이즈, 동성애와 청소년은 악발이 다했는지 이제는 동성애와 청소년, 에이즈를 삼단 합체시켜 동성애 반대의 구호로 이용한다. 이들은 LGBT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기 위해 더 잘 팔리는 낙인을 생산해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동성애자와 청소년, 감염인의 삶에는 무관심을 넘어 무지할 지경이다.

에이즈를 LGBT에 대한 공격의 도구로 이용하는 극우 기독교 세력에게

청소년의 HIV/AIDS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LGBT 청소년을 고려한 실질적인 성교육을 기획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극우기독교세력은 성소수자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데 혈안이다. 치료요법의 발전으로 HIV/AIDS가 이미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이 된 지금에도 극우기독교세력은 질병이 처음 발견된 80년대, 성소수자를 공격하기 위해 에이즈를 동원했던 (이미 망한) 미국 우파의 낡은 논리를 고장 난 라디오처럼 반복한다.

미국의 ‘엑소더스’ 사례가 보여주듯 이들은 언젠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사죄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극우 기독교세력의 난동과 쿼어퍼레이드에 대한 서대문 구청의 행사승인취소에도 불구하고 6월 7일, 우리는 여름의 햇빛을 맞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거리를 행진할 것이다. 동인련 HIV/AIDS 인권팀은 올해 쿼어 퍼레이드에서 처음으로 부스를 운영하는 한국 청소년 청년 감염인 모임 ‘알·R’과 함께 한다. 첫 부스를 여는 알의 구호는 ‘Why So Serious?’다. HIV/AIDS라는 질병은 심각할 것이 없으며, HIV/AIDS라는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 필요도 없다. 정말 심각한건 LGBT와 HIV/AIDS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편견이 만연한 이 사회이지, 질병도 질병을 가진 사람도 아니지 않은가. 우리는 구호가 선명하게 적힌 빨간 손수건을 나누며,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 힘차고 즐겁게 우리의 축제를 즐길 것이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트랜스젠더, 솔직히 돈주고 하라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말말말 트랜스젠더 혐오 반대]]

예전엔 자신감이 없었어요. 내가 괴물처럼 보일까 봐, 사람들이 날 어떻게 대할지 모르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활동을 하는 걸 알리니까 속에 있는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주변의 변화를 크게 느껴요. 트랜스젠더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트랜스젠더인데도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싫어하는데 트랜스젠더라는 타이들이 흠이 아니라 자랑거리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은 결정들을 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으니까요. 솔직히 돈 주고 하라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_ **Edhi**

사람들이 트랜스젠더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죠.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이성애자들인 것은 맞지만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도 있다는 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_ **캔디**

트랜스젠더는 호르몬 투여와 수술을 하기도, 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니 아무 외적 변화가 없고 호르몬 투여나 수술을 할 생각이 없다는 사람에게 함부로 ‘너는 트랜스젠더가 아니야’라는 씁쓸한 실수는 하지 않기를 바란다. 본인을 여자 또는 남자라고 말하는, 외적 변화가 없는 트랜스젠더를 대할 때에 그 사람이 말한 성별로 대해 줬으면 한다. _ **서진**

그리 원하던 수술을 마치고 난 후 저는 정말 여성으로서의 인생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아주 전혀 달랐습니다. 말이 좋아 여성이 된 거지, 꾸준히 트랜스젠더라는 수식은 따라다녔습니다. 거기다 덧붙여 은어 표현으로, ‘완트’ - 성전환수술 모두 마친 트랜스젠더 - 로 받아들여지면서 트랜스젠더들 사이에서도 소외감을 느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비수술 젠더들 사이에서도 말이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테지만요,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기세고 색시한 모습 많이 떠올리시겠지만(물론 그런 점들도 많겠죠, 저 또한 그러니까요) 그런 점들이 다는 아닐 테죠.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에서도 트랜스젠더의 일은 항상 뒤에 있는 듯합니다. 그 문제를 왜일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희 트랜스젠더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차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 트랜스젠더들 드세지 않습니다. 기갈스럽지만 묻거나 해치지 않습니다. _ **지은**

일단 호르몬을 시작하면 외형의 변화와 함께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로 취직하기 어려워지고, 학업을 마치지 않았다면 일자리는 더욱 요원해집니다.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생계가 힘드니 보험적용이 안 되는 성전환수술을 할 수 없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주민번호(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가 바뀌지 않으니 취직을 할 수 없어서 생계가 어려워집니다. 일부 병원의 횡포가 있어도 묵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의사소가가 있어도 표면화되지 않습니다. 많은 게이 모임 카페들이 본인확인 된 ‘남성’, 즉 주민번호 1로 시작하는 사람만 가입되게 설정되어 있고, 여성으로 패싱될 수 있는 외모가 아니면 레즈비언 바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받기도 합니다. 결국 두 커뮤니티 어딘가에 끼인 존재가 되지요.

트랜스젠더의 이행을 종종 여행에 비유합니다. 이성애주의와 성별이분법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는 적극적으로든 수동적으로든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주민증을 가지고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하고, 생계를 꾸리고 수술비를 마련해야 하며, 의료정보를 모으고 수술의 종류와 방식과 병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_ **현**



동성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시작!

우리는 법원과 정부, 국회,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 요청한다.
평등하고 다양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성소수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

지난 2013년 9월 7일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가 사회 각층의 축복 속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 부부는 같은 해 12월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청은 수리를 거부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서대문구청의 김조광수·김승환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고, 이들 부부의 행복한 혼인생활을 법적으로 인정하라.
- ▷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인권의 견지에서, 배우자의 성별이 같다고 하여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차별적인 관행은 설 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확인하라.
- ▷ 정부와 국회는 성소수자들의 다양한 가족이 침묵을 강요당하는 현실을 인지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평등한 가족제도를 설계하여 법제화 할 의무를 이행하라.

또한 성소수자이거나 성소수자가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요청한다.

- ▷ 당연시되는 차별과 혐오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법원과 정부, 국회에 차별적 관행과 제도운영이 설 자리가 없음을 분명하게 알리자.
- ▷ 우리 사회가 소수자를 외면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임을 증명하자.
- ▷ 우리 사회가 타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혐오세력은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숙하였음을 확인하고, 차별과 혐오라는 폭력을 종식하는 데 힘을 보태자.

‘동성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기자회견문 **中** 발췌

국립국어원은 ‘사랑’ 뜻풀이 퇴행적 재개정을 철회하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평등한 한국어를 만들라!

2014년 1월 국립국어원은 <표준국어대사전>의 ‘사랑’의 뜻을 이성애적으로 재개정했다. 보다 포괄적이고 평등하게 정의되어 있던 ‘사랑’의 뜻을 퇴행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국립국어원의 이런 행태에 많은 성소수자들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분노했다. 지난 4월부터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사랑’의 뜻풀이 재개정 철회 서명운동을 벌였고 5월 16일에는 국립국어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국립국어원은 시민들과 인권단체의 요구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사랑’의 뜻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랑’의 주체는 오직 남녀로 명기되어 있었다. 이에 일부 대학생들이 개정을 요구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2011년 11월 ‘사랑’을 포함한 ‘연애’, ‘애정’, ‘연인’, ‘애인’의 뜻이 남녀간 관계에서 성중립적 표현인 ‘두 사람’으로 개정됐다. 사랑의 정의가 개정된 후 보수기독교 세력은 ‘사랑’의 뜻풀이를 이성애적으로 되돌리고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 한국교회연합은 지난해 10월 국립국어원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사랑의 뜻풀이 변경을 두고 “‘사랑’의 뜻을 왜곡시키고 동성애를 조장, 방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정을 요구했고,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는 항의 캠페인을 꾸준히 벌였다. 그 결과 개정된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2014년 1월, 국립국어원은 사랑의 뜻풀이에 ‘남녀’라는 표현을 다시 끼워 넣었다. 보수 기독교계의 조직적인 동성애 혐오에 국립국어원이 굴복한 것이다.

이처럼 국립국어원의 ‘사랑’의 뜻 재개정의 1차적 원인은 보수기독교 세력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보수기독교 세력에 혐오 공세에 쉽사리 굴복한 국립국어원이다. 국립국어원은 “사랑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런 전형적인 쓰임을 제시한 것”이며, ‘(제시)방법’의 문제일 뿐이라고 해명한다. 하지만 “균형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식의 해명이야말로 뻔뻔한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의 태도는 이성애는 ‘정상’이고 성소수자의 사랑은 ‘비정상’이라는 편견을 드러내며 인권의식의 결핍을 노출할 뿐이다.

국립국어원은 한국의 대표적인 어문정책종합기관이다. 그 막강한 권한만큼이나 커다란 책임감이 따르기 마련일 터, 국립국어원의 윤리헌장에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언어에 대한 차별과 소외가 없는 다원적 언어정책 수립에 노력한다”고 나와 있다. 말은 의사소통하는 도구로써 사람들의 인식을 드러내고 때로는 통제하기도 한다. 언어의 불화가 조장하는 각계각층간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립국어원의 역할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언어에 차별을 강제하는 것은 소통을 막고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며, 소수자로 하여금 언제든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국립국어원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랑의 뜻을 이성애로 제한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강화시킬 뿐이다. 국립국어원은 ‘사랑’의 뜻풀이의 퇴행적 재개정을 철회하고 포괄적이고 평등한, 소수자 친화적인 한국어를 만들어야 한다.